

# 이스라엘, 가자지구 최대 병원 급습...“하마스 지휘부 장악”

### 전쟁 39일·지상전 18일만에 군사수뇌부 해체 마무리 돌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 침투로 분수령을 맞이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이스라엘군이 이 병원을 하마스 군사본부로 지목해온 만큼 지상전 군사작전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이스라엘군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레말 지역에 있는 알시파 병원을 급습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39일,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이 '전쟁 2단계'를 선언, 가자지구 지상전을 본격화한 지 18일 만이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 군사조직의 마지막 보루로 보고 지속적으로 장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의료시설 공격이 국제인도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하마스가 지하에 비밀 작전시설을 가동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자와

전력에 의존해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봉쇄와 주변 폭격으로 계속 압박을 가했다.

그러다가 백악관의 공개적 승인으로 관측되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알시파 병원에 전투원을 들여 보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 거점으로 쓴다"고 말했다.

무력분쟁과 관련한 국제인도법은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벗어나 명백하게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때 공격을 면책하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백악관의 입장 표명은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습격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은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고 이스라엘군은 '정밀표적 작전'에 나섰다고 권고에 호응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군사 작전 개시를 병원에 사전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시파 병원의 의사는 미 CNN 방송에 이스라엘



14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 속 이스라엘 장갑차가 가자지구 알시타에서 기동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핵심 요새 중 하나인 알시타 난민촌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군이 작전을 시작하기 30분 전에 이를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의 결과에 따라 가자지구 내 전쟁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내세운 애초 목표는 하마스의 군사조직과 통치역량(정치조직)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알시파 병원 등 지하터널 기습은 지하에 있는 하마스 군사 수뇌부 해체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까지 이스라엘군은 지상에 있는 하마스의 입법기구, 행정청사, 치안본부 등 통치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모두 점령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달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시작한 작전의 첫 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전쟁이 ▲하마스 전면해체 ▲숨은 저항세력 제거 ▲새 안보체제 구축 등 3단계로 구성된다고 지난달 20일 자국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하마스 조직원들은 가자지구에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공세가 달한 가자지구 남부로 도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알시파 병원 등 거점 급습의 결과가 나오면 이번 전쟁은 단장을 소탕하는 소규모 작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 美中, 정상회담 앞서 '기후 공동대응' 합의...워킹그룹 가동키로

### "에너지정책·전략대화도 재개"

미중 양국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뤄질 1년 만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생태환경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와 세진화 중국 기후 변화 특사는 지난 7월 16~19일 베이징 회담과 이달 4~7일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 회담 결과를 정리한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서니랜드 성명'을 이날 공개했다.

양국은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을 상기하면서, 중미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는 데 힘쓰겠다는 점을 다시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파리협정의 각 목표를 이행하고 다자주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 양국이 국내 대응 조치와 공동 협력 행동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를 위해 양국은 협약 및 파리협정의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현재 세계의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에 똑바로 맞서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기후 특사가 공동으로 주재하고 양국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2020년대 기후 행동 강화 워킹 그룹'도 가동된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전환, 메탄, 순환 경제, 효율적인 자원 이용,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省)·주(州)와 도시, 산림 훼손 등 그간의 공동성명·공동선언이 확정된 영역과 양국이 동의한 기타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배출 통제·절감 정책과 조치,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와 경험 공유, 협력 영역 식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에 맞춰 지지자들이 오성홍기를 들며 반기고 있다. 시 주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다. /연합뉴스

별과 시행, 공동성명·공동선언과 이번 성명 이행 상황 평가도 워킹그룹이 맡을 예정이다.

양국은 에너지 정책·전략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 의제에 관한 교류 진행과 트랙2(민간) 활동 등 실무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 건축, 교통, 설비 등 중점 영역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 정책 교류를 심화하기 위한 양국 에너지 효율 포럼을 다시 여는 것에도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방정부 간 기후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지방 기후 행동 고위급 행사를 연다는 계획도 명시했다.

양국은 이날 성명에서 2021년 4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중 공동성명과 그해 11월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을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을 상기·재확인했다.

미중은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공평과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각국의 능력(에 입각한 부담)'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며, 상이한 국가별 상황(國情)을 고려해 파리협정 제2조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섭씨 2도 이내 통제와 섭씨 1.5도 이내 제한 노력, 섭씨 1.5도 유지의 실현 노력으로 협정의 목적 달성에 힘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토론토 주민 10명 중 한 명 푸드뱅크 의존

### 이용자 연말까지 300만명 넘을 듯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일상 식품 조달을 위해 자선단체의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주민이 10명 중 한 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토론토의 푸드뱅크 '데일리 브레드' 등이 지역 주민의 푸드뱅크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푸드뱅크를 방문한 주민이 총 2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1% 늘어난 수치로 올해 말까지 푸드뱅크 이용자가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사 보고서가 밝혔다.

푸드뱅크 관계자는 "한 도시에서 주민 10명 중 한 명꼴로 푸드뱅크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심각한 위기 상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1년 사이 푸드뱅크 이용자가 50%나 늘어나는 추세는 자원봉사자들과 직원의 헌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라고 토론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사에서 파악된 푸드뱅크 이용자와 토론토 총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조사 내용이 실제보다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푸드뱅크 이용 지표는 정책 실패의 한 지표"라며 "각급 지자체가 저마다 저지른 실패가 중첩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4센트짜리 美 우표, 경매서 26억원 낙찰

### 우표 수집가의 성배 '인버티드 제니'

전 세계 우표 수집가들의 '성배'로 불리는 희귀 우표가 미국 경매에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에 팔렸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우표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버티드 제니'로 알려진 미국 우표가 최근 뉴욕 로버트 시겔 옥션 갤러리에서 열린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이 같은 가격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인버티드 제니는 미국에서 1918년에 발행된 액면가 24센트짜리 항공 배달 전용 우표다.

제작과정에서 우표 중앙의 비행기가 뒤집혀 인쇄된 '에러 우표'다.

에러 우표는 검수 과정 등을 통해 파기돼야 하지만, 인버티드 제니는 그중 100장 묶음이 시중에 유통됐다.

이후 이 우표는 수집가들의 표적이 됐고, TV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경매에 출품된 인버티드 제니는 시중에 유통된 100장 중 상태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2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에 성공한 인버티드 제니의 새 주인은 76세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인버티드 제니 경매에 참여했지만, 낙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경매에서 인버티드 제니의 낙찰가는 159만 달러(약 20억8000만 원)였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